



## 경기문화재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과 특화' 세미나

13일 경기도문화의전당 2층 컨벤션센터에서

2009-02-13 21:22:44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은 경기도내 문예회관들의 그간 성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과 특화'라는 주제로 13일 경기도문화의전당 2층 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문화재단 공동 주관으로 시군 문예회관 건립·운영 관련자 등 1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문예회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데일리안

경기도내 문화환경과 문예회관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예회관 포지셔닝을 제안한다. 또한 문화예술창작보급을 통한 지역문화정체성 형성 역할과 특화를 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제1주제 '경기도 문화환경과 문예회관의 변화'는 정광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제2주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예회관의 역할'에 대해서 이진배(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제3주제 '경기도 문예회관 콘텐츠 생산 활성화 방안'은 구자흥(명동정동극장 극장장), 제4주제 '경기도 문예회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은 박인건(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이 각각 발표했다.

이어서 종합토론에서는 강석흥 고양문화재단 본부장의 진행으로 정중헌(서울예술대학 교수), 조경환(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연기획팀장), 박만진(하남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팀장) 등이 참여해 실질적인 질의와 토론을 벌였다.

현재 경기도내에 등록된 공공 공연장 수는 총 109개(공공 85개, 민간 24개)로 이 중에서 문예회관으로 분류되는 곳은 24개소 48개 공연장이다.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기반시설총람>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

007년 기준, 경기권 문예회관의 연간운영비가 1개소당 5000만원에서 235억원으로 지역별 편차를 보이며, 문예회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총 520명으로 이 중에 전문인력은 공연기획, 전시교육, 홍보마케팅, 무대 등 약 328여명으로 약63%를 차지한다.

이 전문인력 중심으로 2004년부터 경기권 네트워크망을 조직화하여 상호 공동제작, 공동기획을 통해 성공적인 교류체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이제 네트워크망을 31개 시군 지역의 중·소 문예회관까지 확대하여 지역별 특색있는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새로운 협력체계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내 문예회관 24개소는 전국에 산재한 161개 문예회관 중 1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큰 폭으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간 높은 운영비가 투입되는 것에 비해 획일화, 저효율성이 지적됐다.

또한 문예회관을 기초 자치단체 기준으로 한 지역 문화거점시설로 볼 때 각자 처한 환경은 매우 상이하나, 문예회관에 대한 정책적 역할이나 지역사회에서 거는 기대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예회관이 단순 예술의 유통 보급 기능을 넘어서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문화예술의 상징성까지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중요한 시점을 지적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데일리안 경기 박익희 기자]